

濟州市議會會議錄

第31回

開會式
濟州市議會

日時：西紀 1960年 8月 2日 上午 11時

場所：濟州市議會 議事堂

第31回 濟州市議會 開會式 節次

- 開 式
- 國民儀禮
- 開 會 辭(議長)
- 祝 辭(市長)
- 萬歲 三唱
- 閉 式

<式 辭 要 旨>

오늘 第31回 臨時會議을 4·19革命 以後 두번째로 召集함에 있어 議員同志 여러분을 高熱에 健康한 모습으로 만나게 된 것을 기뻐히 여기는 바입니다. 4·19革命 以後 온 世界 自由友邦 國家들의 注視裡에 第2 共和國의 기틀을 마련하는 7·29 民·參議員 總選舉가 完了된 것은 4·19民主革命精神에 立脚한 公明選舉 였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議員同志 여러분들은 國家的 重大한 總選舉를 實施하는데 많은 關心과 또한 努力을 傾注하여 왔다고 믿어지는 바입니다.

오늘 最後的인 臨時本會議에 臨하여 各議員의 矜持를 잃지않고 더욱 最終의 美를 裝飾하는 意圖下에 6萬 市民의 福祉를 누릴 수 있도록 最善 盡力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들의 任期가 來 8月 7日로써 滿了되는 이때 全國 各級地方議會에서 空白期를 免키 爲하여 多角度로 關係要路에 建議 또는 實地面에서 折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問題는 新國會가 召集되는 此際 解決될 것으로 思料됩니다만 이런 空白期의 重大性을 생각할 때

如何든 4代民議院 議員 自身들의 本分을 忘却하고 오로지 利己主義的인 心情에 사로잡힌 것으로써 매우 遺憾된 것이라고 아니 생각 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執行機關으로 부터 提議된 西紀 1960年度 濟州市一般會計 및 上水道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을 爲始하여 其他 重要な 案件 審議에 아무쪼록 有終의 美를 舉揚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簡略히 式辭에 가름하는 바입니다.

〈祝辭要旨〉

이 사람이 就任後 두번째를 맞이하는 오늘의 會議席上에 議員 各位들을 對하게 됨을 榮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7·29日 民族的 大課業인 民·參議員 總選舉를 實施함에 있어서 우리 濟州市 管內에 公明正대한 選舉를 치룬데 對하여는 議員 各位께서 陰으로 陽으로 協助하여 주신 惠澤으로서 慶賀하여 마지 않습니다.

말씀사죄을 것은 現行地方自治法 改正案이 通過를 못본채 空白期로 들어가는 이때 特히 高熱임에도 不拘하고 몇가지 案件 提議케 되어 悚懼한 마음 禁할 바가 없습니다만 本市 앞날의 發展에 寄與하여 주시는 意圖下에 最善을 다하여 우리들의

業務 遂行에 支障을 招來치 않도록 恪別 努力하여 주실 것을 懇曲히 祈願하면서 簡略히 祝辭에 代身하는 바입니다.